

VIP REPORT



- 고용 안정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주원,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고용 안정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역할	4
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	11
4. 정책적 시사점	19
■ HRI 경제 지표	22

1. 개 요

한국 경제는 단기적인 경기침체 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의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최근 대내외 경제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고용 안정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실업자는 통계상 파악되는 숫자만도 약 85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7만여 명이나 급증하여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회적이고 미봉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고용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경기침체 이후 국면을 대비하여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부문은 제조업이다. 그러나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못하다. 그것은 독일, 일본 등 전통적 강국들과의 경쟁력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빠른 추격마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당면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중 한 가지가 바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높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국내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주된 기능이 '제조업의 효율성 제고'에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파급될 수 있다. 이에 우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위상이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도 모색해 보았다.

2.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역할

(명목 GDP의 6%, 총취업자의 8.1%) 2008년 현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약 6%, 서비스 산업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수는 총취업자의 8.1%, 서비스업의 12.1%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산업연관표 상 총투입액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부가

가치율은 2005년 기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61.3%로 전산업(41.2%)은 물론 타 산업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산업 연관 파급 효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경제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경제 성장과 고용 진작 효과가 크다. 2005년 산업연관표 기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98로 전산업(0.763)과 다른 산업들보다 높다. 또한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원 당 17.7명으로 他 서비스 산업(19.1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림어업(49.7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고용창출력을 가진다.

(他 산업 지원)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전형적인 후방지원산업(他 산업의 후방 산업)의 특성을 가진다. 2005년 기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전방지원률(총공급액 대비 타 산업으로의 중간투입액 비중)은 72.2%로, 업종 특성상 중간투입 비중이 높은 광업(100%), 전기·수도·가스(73.8%)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수출 비중) 서비스 부문중 운수 산업을 제외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수출이 비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연간 국내 서비스 수출은 총 759.9억 달러로 이 중에서 17.3%인 131.6억 달러가 비즈니스 서비스 수출 부문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WTO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부 국가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 EU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계 8위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

(낮은 부가가치 비중)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2007년 기준 6.0%로 OECD 조사 대상 26개국중 2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비중 1위국인 프랑스(27.8%)는 물론 OECD 평균 19.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해당된다.

(미약한 고용창출력)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2007년 기준 전산업 대비 취업자 비중은 7.9%로, OECD 조사 대상 23개국중 18위에 머물렀다. 이는 OECD 평균인 10.9%와 1위 네덜란드의 17.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공공·사회 서비스업을 제외한 민간 서비스업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7.8%로 23개국중 22위에 그치고 있다.

(低 생산성)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2007년 기준 27,870달러로 조사 대상 2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의 평균치 66,217달러의 약 42% 수준, 가장 높은 생산성을 기록한 룩셈부르크의 95,085달러 대비 29% 수준에 해당된다.

(非 효율성) EU-KLEMS의 산업별 성장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TFP(총요소생산성)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2001~2005년 연평균 기준 69.5p로 조사 대상 17개국 중에서 14위에 그치고 있다.

(취약한 국제경쟁력) WTO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2006년 기준 국가별 산업경쟁력 지수(무역수지/수출입합×100, -100~+100의 범위)를 계산한 결과, 한국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25.4로 조사 대상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국제 비교 >

		한국		글로벌 최고 수준	글로벌 평균
		순위	수치		
양적 지표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	25/26	6.0	14.6 (프랑스)	9.3
	총취업자 대비 비중 (%)	18/23	7.9	17.0 (네덜란드)	10.9
질적 지표	1인당 생산성 (달러)	20/20	27,870	95,085 (룩셈부르크)	66,217
	효율성 제고 지수 (p)	14/17	69.5	123.8 (아일랜드)	87.5
	국제경쟁력 지수 (p)	13/13	-25.4	66.0 (홍콩)	13.1

주: 한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기준연도는 GDP대비 부가가치비중 (2007), 총취업자 대비 비중 (2007), 1인당생산성 (2007), 효율성제고 지수 (2001~05 평균), 국제경쟁력 지수 (2006).

4. 정책적 시사점

최근 정부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울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SOC 투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녹색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다소 편향적인 산업정책 기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과 같이 단기적으로 경제 불황 극복에 좋은 대안이 되면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제조업 지원 인프라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보다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고용 안정과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수 경기 침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우선 비즈니스**

스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산업의 장기적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경기 불황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요 측면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들의 아웃소싱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인 'BS(Business Service) 바우처 사업'의 조기 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 지방 비즈니스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경영 진단을 통해, 공기업 발주 아웃소싱 사업에 우선 할당 기업을 선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단기 모두를 고려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인력 육성 전략이 요구된다. 업종의 특성상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양적인 고정자본 투자보다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요에 맞는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프로그램 수립, 산학교류 확대가 보편화되어 수요자 중심의 고급 인력이 양성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소득보조, 프로그램 수료자 채용 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의 대형화 유도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산업 내 영세성을 극복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내 자율적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경우 신속성이 보장되고 인력낭비가 적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구조조정 촉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선진 업무기법이나 영업전략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합작 투자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브릭스 등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시장에 대한 신속·정확한 시장수요 정보제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개 요

(1)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

-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 단기적인 경기침체 및 실업문제 극복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 최근 대내외 경제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용 안정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고용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는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이 일회적이고 미봉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고용 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또한 현재의 경기침체 이후 국면을 대비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도 시급한 실정임
 -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부문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임
 - 그러나 우리 제조업은 독일, 일본 등 전통적 강국들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빠른 추격마저 받고 있음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의 장점) 이러한 두 가지 당면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중 한 가지가 바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육성임
 -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높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국내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주된 기능이 '제조업의 효율성 제고'에 있기 때문에, 동 산업 육성은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정의 및 범위

○ (정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他 산업의 생산 활동에 직접적 도움을 주지 않지만, 간접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주는 산업을 의미

- 통계청은 사업 서비스업(비즈니스 서비스업)을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게 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 (범위) 他 산업에 전문 지식을 제공하거나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업종

- 통계청에 따르면 사업 서비스업은 크게 '전문 지식 서비스 제공형', '일상 업무 지원 서비스 제공형'의 두 분류로 구분됨

· 전문 서비스업 :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된 투입요소로 사용되며, 전문지식은 보통 학위를 통하여 취득함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통적으로 사업체 내부에서 수행되었지만, 최근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임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2000.1 - 제8차 개정)를 기준으로 할 때,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사업 서비스업(대분류 코드 M, 중분류 코드 72~75)¹⁾에 해당됨

· 전문 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법무, 회계, 시장조사, 경영상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등임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시설관리, 인력공급 및 알선, 경호 및 경비, 건물 및 사업장 청소, 텔레마케팅, 신용조사 등임

1)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s), 중분류(2자리 숫자사용/Divisions),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Groups),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e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Sub-Classes)의 5단계의 분류구조 및 기호 체계를 사용.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범위 >

기 준	대분류 명칭	세부 업종
표준산업 분류 (통계청 8차 개정)	사업서비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법무, 회계, 시장조사, 경영상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시설관리, 인력공급 및 알선, 경호 및 경비, 건물 및 사업장 청소, 텔레마케팅, 신용조사
산업연관표 부문 분류 (한국은행)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중 부동산 제외	연구기관, 법무, 회계,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광고, 건축공학,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컴퓨터 관련, 청소 및 소독, 인력 공급 및 알선
국제수지 부문 분류 (한국은행)	사업서비스	중개 및 기타무역, 광고 및 시장조사, 기타사업서비스, 컨설팅 및 홍보, 연구개발, 운송리스, 관계기업간 서비스, 법률, 건축 공학, 농광업 현지 가공, 회계
OECD STAN 산업 분류 (OECD)	BUSINESS ACTIVITIES	Renting of machinery & equipment Computer and related activities Research and development Other business activities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WTO)	OTHER BUSINESS SERVICES	Merchanting and other trade-related services Operational leasing services Legal, accounting, management and public relations Advertising, market research and public opinion poll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other technical services Agricultural, mining and other on-site processing services

2.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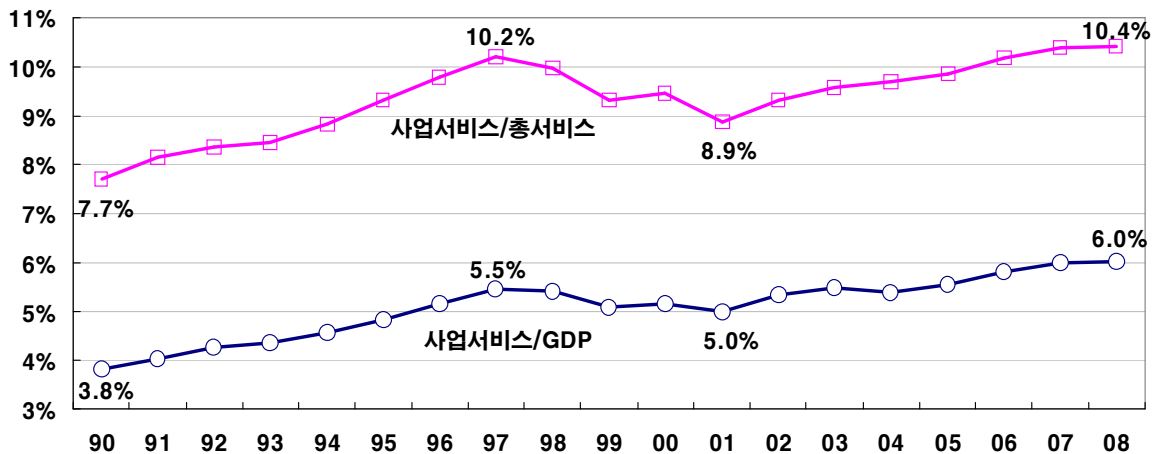
(1)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현황

○ (명목 GDP의 6%) 2008년 현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약 6%, 서비스 산업의 10%를 차지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8%, 2001년 5.0%에서 2008년에 6.0%로 증가함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가 총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7%, 2001년 8.9%에서 2008년에 10.4%로 증가함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주: 명목 부가가치 기준이며, 2008년은 1~3/4분기.

○ (총취업자의 8.1%) 2008년 현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수는 총취업자의 8.1%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수가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8%에서 2008년에 8.1%로 증가 추세를 지속중임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수가 서비스업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7.8%에서 2008년에 12.1%로 증가하고 있음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 및 고용 비중 >

(단위: 만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산업 취업자 수	2,116	2,157	2,217	2,214	2,256	2,286	2,315	2,343	2,358
서비스업 취업자 수	1,296	1,350	1,404	1,408	1,454	1,490	1,527	1,563	1,588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수	101	115	125	130	146	154	167	185	192
사업서비스업/전산업	4.8%	5.3%	5.6%	5.9%	6.5%	6.7%	7.2%	7.9%	8.1%
사업서비스업/서비스업	7.8%	8.5%	8.9%	9.3%	10.1%	10.3%	10.9%	11.8%	12.1%

자료: 통계청

(2)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역할

○ (고부가가치 창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 산업연관표 상 산업별 총투입액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부가가치율(부가가치계수)은 2005년 기준 사업서비스업이 61.3%로 전산업 평균치는 물론 다른 산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총투입액은 중간투입,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세(보조금 공제) 등의 합임
- 부가가치율은 전산업이 41.2%, 농림어업 58.0%, 광업 58.2%, 제조업 25.4%, 건설 45.3% 등이며, 특히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부가가치율도 59.7%로 사업서비스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율(2005년) >

산 업	부가가치 계수 (부가가치율)
농림어업	58.0%
광 업	58.2%
제조업	25.4%
전기·수도·가스	40.9%
건 설	45.3%
서비스(사업서비스 제외)	59.7%
사업서비스	61.3%
전산업	41.2%

자료: 2005년 산업연관표 총거래표.

주: 부가가치율(부가가치계수) = 부가가치액/총투입액 = 1 - 중간투입액/총투입액.

○ (높은 산업 연관 파급 효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높지 않으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높아 경제 성장과 고용 진작에 크게 기여

- 2005년 산업연관표 기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659로 전산업 평균치인 1.852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산업에서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생산된 1단위와 이 1단위 생산을 위해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를 더한 것

- 그러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98로 전산업(0.763)은 물론 비교 대상 6개 산업보다 높은 수준임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동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된 1단위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와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된 부가가치효과의 크기를 더한 것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7.7명으로 他 서비스 산업(19.1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림어업(49.7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고용창출력을 가짐

*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하는 경우 해당부문과 기타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

< 주요 산업의 諸 유발계수(2005년) >

산 업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농림어업	1.771	0.858	49.7
광업	1.779	0.889	11.4
제조업	2.036	0.615	10.7
전기·수도·가스	1.498	0.605	4.3
건설	2.003	0.804	17.1
서비스 (사업서비스 제외)	1.664	0.876	19.1
사업서비스	1.659	0.898	17.7
전산업	1.852	0.763	15.8

자료: 2005년 산업연관표 총거래표 및 국산거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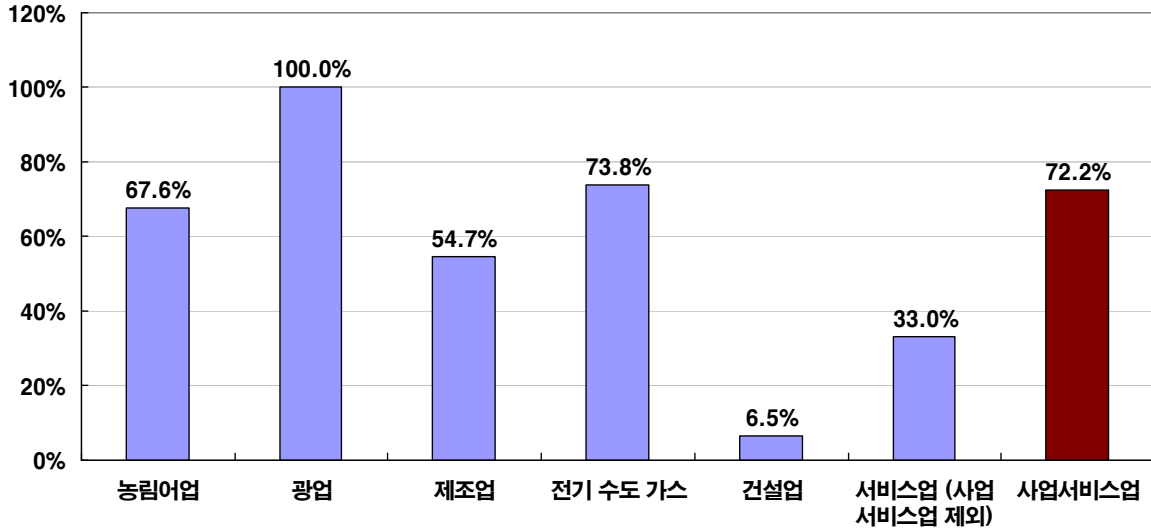
주: 위 표의 유발계수들은 통합중분류 78개 산업에 대하여, 8부문(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수도·가스, 건설, 서비스 (사업서비스 제외), 사업서비스, 기타)으로 부문 통합한 이후 자체적인 행렬 계산을 통해 도출된 것임.

○ (他 산업 지원)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전형적인 후방지원산업(他 산업의 후방 산업)의 특성을 보유

- 산업의 생산은 경제 내에서 크게 ① 최종재수요(소비, 투자, 수출), ② 자신 및 타 산업의 중간투입으로 배분됨
 - 후방 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의 생산품이 중간투입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음
- 2005년 기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전방지원률²⁾(총공급액 대비 타 산업으로의 중간투입액 비중)은 72.2%로, 업종 특성상 중간투입 비중이 높은 광업(100%), 전기·수도·가스(73.8%)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특히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속해 있는 서비스 산업의 여타 업종들의 33.0%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

2) 전방지원률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없으며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만 사용되고 있음에 유의. 전방지원률은 국산거래표상의 중간투입액 합계를 총공급액으로 나눈 것임.

< 산업별 전방지원률(총공급액 대비 타 산업으로의 중간투입액 비중) >



자료: 2005 산업연관표 국산거래표.
 주: 중간투입액/총 공급(수요) 액.

○ (높은 수출 비중) 서비스 부문중 운수 산업을 제외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수출이 비중 1위를 기록

- 2008년 연간 국내 서비스 수출은 총 759.9억 달러로 이 중에서 17.3%인 131.6억 달러가 비즈니스 서비스 수출 부문에서 발생
- 서비스 내 1위 부문은 운수 서비스 수출로 전체 서비스 수출의 5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상품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 수출 1위 업종은 사업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WTO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부 국가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 EU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계 8위의 수출 실적을 기록
 - WTO 2006년 서비스 수출 국가별 순위 : 미국 (1위, 749.3억 달러), 인도(2위, 309.2억 달러), 일본(3위, 306.8억 달러), 중국(4위, 289.3억 달러), 홍콩(5위, 269.3억 달러), 싱가포르(6위, 225.4억 달러), 캐나다(7위, 149.5억 달러)

< 서비스 부문별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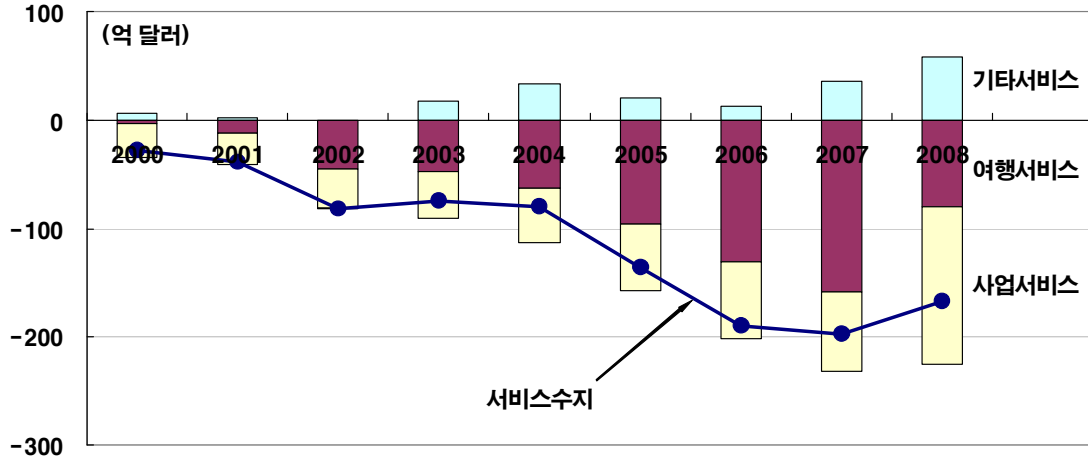
	2006	2007	2008	비중
총 서비스 수출	498.9	633.5	759.9	100.0%
운수 서비스	258.1	335.6	435.5	57.3%
여행 서비스	57.9	61.4	90.8	11.9%
통신 서비스	6.4	5.5	7.1	0.9%
건설 서비스	1.3	1.3	2.6	0.3%
보험 서비스	2.7	4.1	3.7	0.5%
금융 서비스	25.4	40.0	37.8	5.0%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2.5	3.4	2.9	0.4%
특허권 등 사용료	20.5	17.4	24.0	3.2%
사업 서비스	105.3	144.2	131.6	17.3%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3.7	4.5	5.1	0.7%
정부 서비스	15.1	16.2	18.8	2.5%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 무역 細분류 통계.

[參 考] 비즈니스 서비스 수지 적자 심화

-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수출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낮은 국제 경쟁력으로 수입이 이를 상회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
 - 국내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07년 197.7억 달러에서 2008년에 167.3억 달러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여행 수지 적자 폭이 같은 기간 158.4억 달러에서 80.5억 달러로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는 환율 상승에 따르는 원화의 구매력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7년 74.1억 달러에서 2008년에 145.1억 달러로 약 2배가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냄
 - 이에 따라 2007년 서비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여행수지 적자였으나, 2008년에는 사업서비스 적자분이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86.7%를 차지하며 가장 큰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부문별 서비스 수지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주: 기타서비스 수지는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문화·오락, 정부, 기타 부문을 포함.

- 사업서비스 수지를 부문별로 보면 2008년 기준 '중개 및 기타 무역' 수지가 -52.3억 달러로 가장 많은 적자폭을 기록
- 다음으로는 '광고 및 시장조사'(-34.7억 달러), '기타 사업서비스'(-33.7억 달러), '관계 기업간 서비스'(-8.9억 달러), '연구개발'(-5.2억 달러), '컨설팅 및 홍보'(-5.1억 달러) 등의 순서로 높은 적자폭을 기록

< 사업서비스수지 부문별 추이 (억 달러) >

	2007	2008
사업서비스	-74.1	-145.1
중개 및 기타무역	-40.6	-52.3
광고 및 시장조사	-22.9	-34.7
기타 사업서비스	9.1	-33.7
컨설팅 및 홍보	-4.6	-5.1
연구개발	-5.4	-5.2
운용리스	-6.7	-2.2
관계 기업간 서비스	0.6	-8.9
법률	-1.3	-2.1
건축 공학 등	-2.6	-1.6
농·광업 현지 가공	-0.2	-0.2
회계 관련	0.4	0.7

자료 : 한국은행.

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

1) 양적 지표 비교

○ (OECD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 비중)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OECD 조사 대상 26개국중 25위에 불과

- 부가가치 비중 도출 방법 :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데이터상의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자료 이용가능 26개국의 가장 최근 연도(대체로 2006~07년, 경우에 따라서 2003~05년) 비중을 계산함

- 전산업 대비 비중 25위 : 한국의 전산업(명목 GDP) 대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6.0%로 OECD 조사 대상 26개국중 25위를 기록함
· OECD 평균 9.3%, 1위 프랑스(14.6%), 2위 벨기에(13.8%), 3위 호주(13.2%)

- 제조업 대비 비중 최하위 : 한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의 제조업 대비 비중은 21.5%로 26개국중 최하위에 위치함
· OECD 평균 59.1%, 1위 룩셈부르크(126.7%), 2위 프랑스(118.4%), 3위 호주(118.3%)

- 서비스업 대비 비중 24위 : 한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가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24위에 불과함
· OECD 평균 13.5%, 1위 호주(19.2%), 2위 프랑스(18.9%), 3위 벨기에(18.4%)

- 민간 서비스업 대비 비중 23위 : 한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의 민간 서비스업 대비 비중은 15.6%로 26개국중 23위를 기록함
· 본 보고서에서는 민간 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중에서 공공·사회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행정, 복지 등이 제외된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함
· OECD 평균 19.7%, 1위 프랑스(27.8%), 2위 독일(26.8%), 3위 벨기에(26.6%)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 OECD 국가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

	기준연도	전산업 대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대비	민간서비스업 대비	
1	프랑스	2007	14.6%	118.4%	18.9%	27.8%
2	벨기에	2007	13.8%	84.2%	18.4%	26.6%
3	호주	2006	13.2%	118.3%	19.2%	26.2%
4	네덜란드	2006	13.1%	98.2%	17.8%	26.4%
5	미국	2006	12.9%	100.1%	16.7%	23.9%
6	독일	2006	12.7%	54.8%	18.2%	26.8%
7	스웨덴	2005	11.5%	58.3%	16.1%	25.1%
8	룩셈부르크	2007	10.9%	126.7%	12.9%	16.0%
9	스위스	2006	9.6%	48.1%	13.5%	18.7%
10	덴마크	2007	9.2%	61.6%	12.7%	20.0%
11	헝가리	2003	9.1%	41.5%	13.8%	21.8%
12	이탈리아	2007	9.0%	49.1%	12.7%	18.0%
13	오스트리아	2006	8.7%	43.7%	12.8%	18.5%
14	일본	2006	8.4%	40.7%	12.3%	16.8%
15	체코	2007	8.2%	30.0%	14.0%	19.6%
16	아이슬란드	2006	8.0%	69.8%	11.8%	17.4%
17	핀란드	2007	8.0%	33.8%	12.4%	18.6%
18	아일랜드	2005	7.8%	31.8%	12.6%	18.2%
19	캐나다	2004	7.5%	45.1%	11.4%	16.4%
20	스페인	2005	7.3%	45.0%	10.9%	15.8%
21	슬로바키아	2006	7.2%	29.8%	12.5%	17.3%
22	노르웨이	2006	7.2%	71.9%	13.4%	21.2%
23	포르투갈	2006	7.0%	47.5%	9.6%	15.1%
24	폴란드	2004	6.7%	35.4%	10.5%	15.0%
25	한국	2007	6.0%	21.5%	10.4%	15.6%
26	그리스	2007	4.1%	32.9%	5.5%	8.2%
OECD 평균		—	9.3%	59.1%	13.5%	19.7%

자료: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database.

주: 1) 자국 통화의 명목 부가가치 (Value Added at current prices) 기준

2) 민간 서비스업은 'BUSINESS SECTOR SERVICES' (ISIC Rev.3의 50~74)을 의미.

- (상대적으로 미약한 고용창출력)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전산업 대비 비중으로는 OECD 조사 대상 23개국중 18위를 기록
 - 고용 비중 도출 방법 : OECD가 구축하고 있는 STAN(Structural Analysis) 데이터상의 산업별 취업자수를 이용하여, 자료 이용가능 23개국의 가장 최근 연도 (대체로 2006~07년, 경우에 따라서 2004~05년) 고용 비중을 계산함
 - 전산업 대비 비중 18위 : 한국의 전산업 (명목 GDP) 대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7.9%로 OECD 조사 대상 23개국중 18위를 기록함
 - OECD 평균 10.9%, 1위 네덜란드(17.0%), 2위 벨기에(16.1%), 3위 룩셈부르크(15.3%)
 - 제조업 대비 비중 20위 : 한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제조업 대비 고용 비중은 44.9%로 23개국중 20위에 위치함
 - OECD 평균 77.9%, 1위 네덜란드(155.0%), 2위 룩셈부르크(145.6%), 3위 미국(133.1%)
 - 서비스업 대비 비중 20위 : 한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전체 서비스업 대비 고용 비중은 11.8%로 20위에 불과함
 - OECD 평균 15.2%, 1위 네덜란드(21.3%), 2위 벨기에(20.7%), 3위 룩셈부르크(20.1%)
 - 민간 서비스업 대비 비중 22위 : 한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민간 서비스업 대비 고용 비중은 17.8%로 23개국중 22위를 기록함
 - 본 보고서에서는 민간 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중에서 공공·사회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행정, 복지 등이 제외된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함
 - OECD 평균 25.7%, 1위 벨기에(36.5%), 2위 네덜란드(36.0%), 3위 프랑스(34.4%)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 OECD 국가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 >

	기준연도	전산업 대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대비	민간서비스업 대비
1 네덜란드	2006	17.0%	155.0%	21.3%	36.0%
2 벨기에	2007	16.1%	119.1%	20.7%	36.5%
3 룩셈부르크	2007	15.3%	145.6%	20.1%	28.4%
4 프랑스	2006	14.4%	111.2%	18.9%	34.4%
5 미국	2006	13.4%	133.1%	16.5%	29.2%
6 독일	2006	12.5%	65.8%	17.3%	29.9%
7 호주	2006	12.0%	116.4%	16.1%	26.0%
8 이탈리아	2007	11.8%	58.5%	17.5%	30.2%
9 덴마크	2007	11.5%	83.5%	15.0%	27.4%
10 스위스	2007	11.3%	70.7%	15.7%	25.5%
11 캐나다	2006	11.2%	89.4%	14.7%	23.0%
12 스웨덴	2005	10.8%	65.9%	14.5%	30.0%
13 오스트리아	2006	10.4%	69.5%	15.7%	25.3%
14 노르웨이	2006	10.3%	90.4%	13.5%	26.4%
15 일본	2006	10.2%	58.7%	15.0%	22.5%
16 핀란드	2007	9.7%	55.3%	14.1%	27.1%
17 체코	2007	9.4%	34.2%	16.2%	24.9%
18 한국	2007	7.9%	44.9%	11.8%	17.8%
19 스페인	2005	7.8%	48.4%	12.0%	20.4%
20 아일랜드	2004	7.7%	51.7%	11.6%	19.6%
21 슬로바키아	2007	7.5%	30.9%	12.2%	19.5%
22 그리스	2007	6.2%	59.3%	8.9%	15.1%
23 포르투갈	2006	6.0%	33.2%	10.1%	16.9%
평균	—	10.9%	77.9%	15.2%	25.7%

자료: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database.

주: 1) 각국별 취업자수 기준이며, 부가가치 비중에 대한 조사 대상 26개국중 취업자 세부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슬란드, 헝가리, 폴란드가 제외됨

2) 민간 서비스업은 'BUSINESS SECTOR SERVICES' (ISIC Rev.3의 50~74)을 의미.

2) 질적 지표 비교

○ (低 생산성) 한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은 **27,870달러**로 조사 대상 2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

- 1인당 생산성 도출 방법 : OECD STAN 자료 상의 각국 자국 통화 표시 부가가치액을 한국은행의 기준환율과 한국외환은행의 달러화 환산율을 이용하여 달러 베이스로 전환하고 이를 취업자수로 나누어 1인당으로 계산함

- 단 자국 취업자 세부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슬란드, 헝가리, 폴란드와, 공식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체코, 슬로바키아가 제외되고 STAN 자료상 부가가치액의 표시 단위가 명시되지 않은 네덜란드도 제외시킴 (총 20개국)
- 조사 대상 연도는 대체로 2006~07년, 경우에 따라서 2004~05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도 존재함

- 1인당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 **27,870달러**로 최하위 :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27,870달러로 조사 대상 20개국의 평균치 66,217달러의 약 42% 수준임

- 가장 높은 생산성을 기록한 룩셈부르크의 95,085달러의 29% 수준에 불과함

< OECD 국가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 >

(단위 : 달러)

순위	국가	기준 연도	1인당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
1	룩셈부르크	2007	95,085
2	아일랜드	2004	94,535
3	노르웨이	2006	85,861
4	미국	2006	82,164
5	프랑스	2006	80,201
6	벨기에	2007	80,184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7	스웨덴	2005	77,628
8	호주	2006	77,318
9	덴마크	2007	73,765
10	스위스	2006	72,361
11	핀란드	2007	70,622
12	독일	2006	67,974
13	일본	2006	57,997
14	오스트리아	2006	57,808
15	이탈리아	2007	57,012
16	스페인	2005	48,815
17	캐나다	2004	40,115
18	그리스	2007	38,900
19	포르투갈	2006	38,122
20	한국	2007	27,870
<i>20개국 평균</i>		-	66,217

자료: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database,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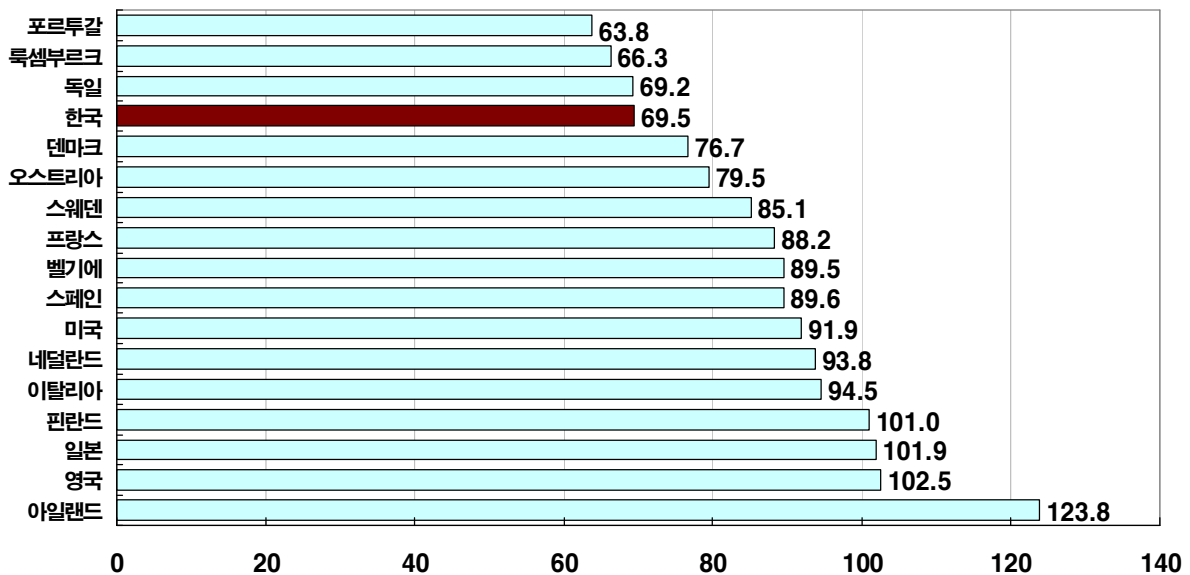
- 주: 1) OECD STAN 자료 상 취업자 세부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슬란드, 헝가리, 폴란드와, 공식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체코, 슬로바키아가 제외되고 STAN 자료상 부가가치액의 표시 단위가 명시되지 않은 네덜란드를 제외시킴
- 2) 각 국가의 자국 통화 표시 부가가치액을 한국은행의 기준환율과 한국외환은행의 달러화 환산율을 이용하여 달러 베이스로 표시, 이를 취업자수로 나누어 1인당으로 계산.

○ (非 효율성)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TFP(총요소생산성)** 증가 속도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은 조사 대상 17개국 중에서 14위를 기록

- **TFP 증가 속도 도출 방법** : EU-KLEMS의 산업별 성장 회계 자료 상의 각국 'Renting of m&eq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산업의 TFP 지수 증가분(1995년 기준 100으로 보았을 때 스케일 조정)을 이용
 - TFP 증가 지수에 대하여 각 국가의 2001~05년 연평균 수치를 계산함

- 조사 대상 17개국중 14위 : 모든 국가에 대해 1995년의 사업 서비스 산업의 TFP 지수 증가분을 100으로 스케일 조정하였을 때, 한국은 69.5p대의 TFP 증가 속도를 기록하여 조사대상 17개국중 14위에 그치고 있음
 - 이는 사업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의 산업 TFP 증가 속도에 56% 수준에 불과함(17개국 평균치인 87.5p의 79% 수준)
- 2001~2005년 연평균 증가 속도가 빨라진 국가는 아일랜드(123.8p), 영국(102.5p), 일본(101.9p), 핀란드(101.0p) 등임
- 한편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연평균 90p 대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은 80p대의 속도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은 70p 대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음

< 주요국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 TFP 지수 증가(1995=100, 2001~05년) >
(단위 : p)



자료: EU-KLEMS.

- 주: 1) 각국 Renting of m&eq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산업의 TFP 지수 증가분에 대하여 1995년 기준 100으로 보았을 때(스케일 조정), 각 연도의 TFP 지수 증가분임
- 2) 위 그림의 수치는 2001~05년의 TFP 지수의 연평균 증가분을 의미함.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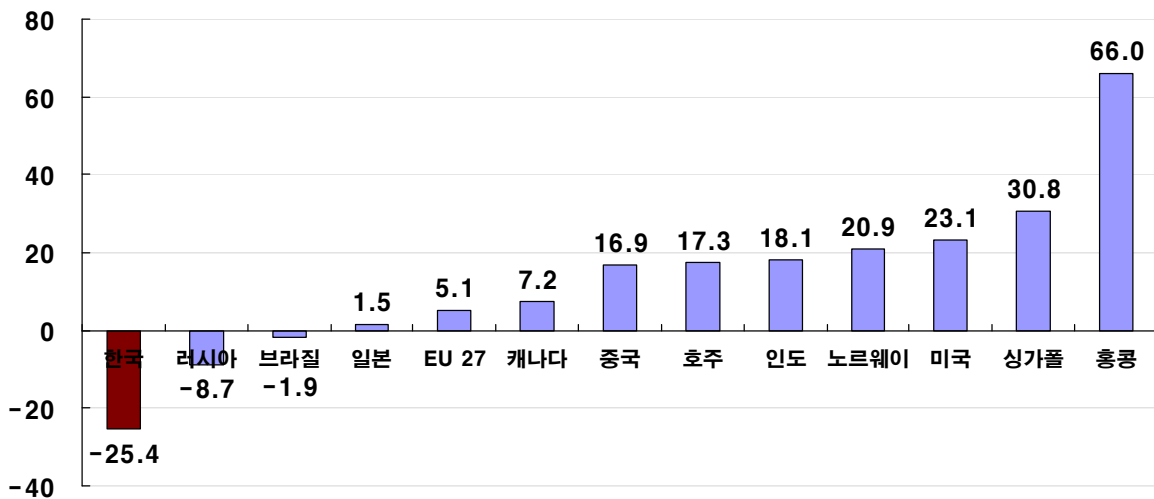
○ (취약한 국제경쟁력)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공업국, 아시아 주변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

- WTO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국가별 산업경쟁력 지수(무역수지/수출입합×100)를 도출해 보면, 한국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25.4로 조사 대상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

- 특히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공업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변국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주요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경쟁력 지수³⁾ (2006년 기준) >

(단위 : p)



자료: WTO(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주: WTO 자료 상의 주요국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 수출입 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

3) 본 보고서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국제무역이론에서의 산업내 무역 측정 지수인 Glubel-Lloyd 지수를 응용하여, 해당 산업의 $(\text{수출} - \text{수입}) / (\text{수출} + \text{수입}) \times 100$ 의 산식으로 자의적 정의를 함. 산업경쟁력 지수의 값은 최소 -100에서 최대 +100의 값을 가짐.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경우 양(+)의 값을 수입이 수출보다 많을 경우 음(-)의 값을 나타내고, 수출과 수입이 동일할 경우 0의 값을 가짐.

본 보고서 상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을수록 비교열위에 의해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가정 하에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 현실과 실제의 경쟁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유의. 따라서 '잠재적' 산업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4. 정책적 시사점


- 내수 경기 침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우선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부터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 산업의 장기적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경기 불황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요 측면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들의 아웃소싱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인 'BS(Business Service) 바우처 사업'의 조기 시행이 요구됨
 - 또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 지방 비즈니스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경영 진단을 통해, 공기업 발주 아웃소싱 사업에 우선 할당 기업을 선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단기 모두를 고려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인력 육성 전략이 요구됨
 - 업종의 특성상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양적인 고정자본 투자보다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요에 맞는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 이를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프로그램 수립, 산학교류 확대가 보편화되어 수요자 중심의 고급 인력 양성이 요구됨
- 특히 최근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소득보조, 프로그램 수료자 채용 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의 대형화 유도가 필요함

-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영세성이 저효율성과 저생산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도 시급함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내 자율적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해야 할 것임
- 특히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경우 신속성이 보장되고 인력낭비가 적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구조조정 촉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단기적인 산업 여건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기업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선진 업무기법이나 영업전략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합작 투자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요구됨
 - 특히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를 들어 브릭스 등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공업국에 대한 신속·정확한 시장수요 정보제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3669-4030)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	2008(E)				2009 수정전망	
			상반기	3/4분기	4/4분기	전체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5.0	5.3	3.8	-3.4	2.5	-2.2	
	최종소비지출 (%)	4.7	3.1	1.7	-2.4	1.3	-2.5	
	민간소비 (%)	4.5	2.9	1.1	-4.4	0.5	-2.8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1.4	-8.4	-1.9	-3.7	
	건설투자 (%)	1.2	-1.2	-1.3	-6.1	-2.7	1.8	
	설비투자 (%)	7.6	1.0	4.7	-14.0	-2.0	-11.5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	60	-53.5	-85.8	75.2	-64.1	1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47	-68	-79	15	-133	66
		수출 (억 \$)	3,715	2140	1,152	931	4,223	3613
		증가율 (%)	(14.1)	(20.4)	(27.3)	(-9.9)	(13.6)	(-14.4)
		수입 (억 \$)	3,568	2208	1,231	915	4,353	3,547
		증가율 (%)	(15.3)	(29.7)	(43.0)	(-9.0)	(22.0)	(-18.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2.8	
	실업률 (%)	3.2	3.2				4.0	
	국제유가(Dubai, \$)	68	94.29				55	
원/\$ 환율 (평균, 원)		929.0	1,103.36				1,250	